

신우철 완도군수 “미래 해양산업 선도…지역 발전 꾀할 것”

●민선 8기 2주년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지역 특화 자원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주력

신우철 완도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이해 해양치유산업의 전기를 마련하며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천명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와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우철 군수는 먼저 “민선 6기와 7기 때부터 긴 시간, 어렵게 추진해왔던 역점 사업들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완도가 ‘희망한 미래 100년’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군정 운영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신 군수는 민선 8기 2년 가장 큰 성과

로 2015년부터 준비해 지난해 11월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연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꼽았다.

국내 최초 개관한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춘 해양치유 시설로 3만 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완도군은 앞으로 센터 내 인피니티 풀 등 시설을 보강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해양치유로 대한민국 건강의 삶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7월 중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전문 운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서비스 제공으로 자체 수익 모델



신우철 완도군수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창출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성과로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4관왕 등극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준공 등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국립해양수산물박람회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국립난대수목원 기본 계획 수립 완료 ▲수산물, 쌀, 농산가공품 수출(1천500억원)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

등 총 40건 수상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공모사업 18건 선정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 유치 ▲전남 최초 군내 버스 무료 운행 등을 제시했다. 이어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

유산업 구축 ▲해양치유·산림치유 연계 치유형 웰니스 상품 개발 ▲해양치유 호텔·리조트, 골프 테마파크 건설로 체류형 치유객 유입 ▲섬 치유·관광 자원 특화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건설 등 해조류·전복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국립난대수목원·국립해양수산물박람회 조기 착공 ▲특산물 수출 시장 확대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속도감 있는 대규모 SOC 사업 ▲지속 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건설 등은 완도로서 가능한 산업”이라며 “미래 해양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 지자체 소멸 위기 극복,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꼼꼼히 살펴 보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완도=윤보현기자

강진군, 먹깨비 매출 전남 1위 ‘달성’

누적 주문 12만건·매출액 30여억 ‘반값관광’ 전년비 관광객 47% ↑

강진군이 공공 배달앱 ‘먹깨비’ 매출액 전남 1위를 달성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효과를 입증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강진군이 전남도에서 가장 높은 먹깨비 매출액을 기록했다.

집계는 먹깨비 앱이 출시된 2022년 7월 1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체 사용액으로, 강진군은 누적 주문 수 12만601건, 총매출액 29억8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3만2천의 작은 도시 강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무수한 축제와 행사를 열며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함께 진행, 배달금 등의 부담을 덜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2년 동안 약 30억원에 달하는 매출 수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수월 돼 축제·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배달앱 먹깨비 전남도 가맹점 매출현황

(2022년 7월~2024년 6월 기준)



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짚어낸 것으로 풀이했다.

강진군은 지난 한 해와 올 상반기에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을 진행하며 먹깨비 할인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왔다. 강진 반값관광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만1천38명, 4천22일이 강진을 다녀갔고, 이들이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은 13억1천1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절반 수준인 6억1천157

만3천원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원됐다.

반값 여행에 힘입어 올해 전체 관광객은 166만8천959명으로, 전년 113만1천988명 대비 47%가 늘었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앞으로도 강진군만의 특별한 자체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영광 한센인 정착촌, ‘축산악취’ 해법 찾았다

영민농원 내 5개 돈사 폐업 후 환경개선 재정비 추진

영광군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영민농원 한센인촌 정착민들의 축산악취에 관한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영민농원을 방문, 주민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마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조정 회의는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한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 대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대주교, 영민농원 대표, 축산 농가 5명 등 총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민농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서 서명,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합의했다.

주요 조정서 내용은 영광군은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 내 5개

의 돈사를 폐업하고, 이 지역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정비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축산농가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축산농가는 돈사 폐업 시까지 축산악취 관리에 지속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수년간 지속돼 왔던 한센인 정착촌 내 양돈사업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목포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비상구 폐쇄·장애물 설치 등

목포소방서는 8일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고 대상으로는 숙박·문화·집회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비상구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 소방시설 차단·임의조작으로 작동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

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포상은 최초 신고 시 1건 당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2회 신고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는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신고포상제의 목적은 징계가 아닌, 보상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해남 친환경쌀, 카자흐스탄에 수출한다

신라인 그룹과 200t 규모 수출 계약 체결

해남군은 “최근 카자흐스탄 수출을 위한 해남 친환경쌀 수출 초도물량 2t에 대한 선적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해남군 현산면 땅골항도친환경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를 비롯한 박상정 군의원, 조자옥 전남도 양곡유통팀장, 서동순 농수산수출팀장, 권오엽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아시아와 황도연 글로벌 사업처장, 송미정 신시장개척부장, 땅골항도친환경 조합원 등이 참석해 해남쌀의 중앙아시아 시장 첫 진출

을 기념했다.

땅골항도친환경농조합은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풀드체인(식료품 등의 저온유통 시스템)을 보유한 신라인그룹과 계약을 맺고, 50만달러, 200t 규모의 해남 친환경 쌀을 수출하기로 했다.

고려인 3세인 신 안드레이 회장이 창립한 신라인 그룹(Shin Line Group)은 카자흐스탄 내 1위 아이스크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식품제조 유통회사다.

지난해 BGF리테일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

지 CU편의점 50개소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에 설립할 계획으로, 냉동김밥 등 식품 제조에 해남쌀을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쌀의 중앙아시아 수출이 이번이 처음으로, 해남농식품의 수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물론 최근 몽골 등 아시아권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K-푸드의 확산에도 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스탠(stan) 계열의 국가로 시장을 확대하게 돼 매우 의미있고, 수출 전망도 밝다”며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활성화로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암군, 내년부터 수도요금 감면 확대

19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30% 감면

영암군은 8일 “내년부터 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 요금 감면 기준 확대는 다자녀 우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을 뒷받침하

기 위한 정책이다.

영암군은 관련 조례 규정을 “5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 가구”에서 “19세 이하 직계비속 2명 이상 가구”로 개정해 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1천200여 가구가 추가

로 매월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받을 가구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본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보훈가족 새 보금자리’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

보훈단체 사무실 일원화…회원 편의 위한 맞춤형 시설 조성

함평군은 8일 “지난 5일 함평군 내교리 현장에서 보훈회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이항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도·군의원,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회관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내빈 소개와 건립경과 보고에 이어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커팅 이후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함평군 보훈회관은 보훈가족의 숙원 사업으로서 분산된 보훈단체 사무실 일원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함평군은 2021년부터 총사업비 28억8천만원을 투입해 함평읍 내교리 188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618.39㎡ 규

모의 신축 보훈회관을 건립했다.

건물은 보훈단체 사무실 6개와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회관의 옥상까지 승강기를 운영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시설로 조성했다.

이상의 군수는 “보훈회관 건립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에 대한 보은이 아닌 국가와 지역의 정기를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함평군 보훈회관이 보훈가족의 긍지와 애국심의 상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중히 가꾸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함평군 보훈회관 준공식

